

<2025년 2월 23일 주일말씀>

전도해서 내 소원 이뤘다

본 문 :

<마태복음 4장 18절~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사도행전 2장 38~41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도행전 22장 5~8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해서 내 소원 이뤘다’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전도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사람의 속마음과 각 개성을 자세히 다 파악하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다.

사람은 공통성의 존재다.

그중에 특이한 자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성향, 심리, 마음들이다.

고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대부분 동일하다.

새 시대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감격해 하며

역사를 따르는 것이 공통의 반응이다.

그중에 더러는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많은 자들은 대부분 진리에 갈급하다.

그 많은 자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라.

성령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역사하시니,

너는 말씀을 전하여라.

- 고기 잡으러 다니지 않으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와 같이 전도하러 다니지 않으면 평생 한 명도 전도 못 한다.

꿈에 선생이 매일 고기를 잡으러 강가와 바다로 다니고 있었다.
 어느 때는 살아 있는 동물을 잡으러 산으로도 다녔다.
 잡으러 가면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잡기가 어려웠다.

어느 날은 바닷물이 썰물 되었을 때
 각종 고기가 진흙 모랫바닥에서 뛰고 있었다.
 그런데도 잡는 자가 많지 않았다.
 그때 섬리인들이 모여들었다.

또 어느 때는 강가와 냇물에 가뭄 때가 와 물이 빠지면서
 고기들이 웅덩이에 갇혀 잡기 쉬웠다.
 물이 빠지니 바닥에서 뛰다 죽기도 하였다.

- ⇒ “매일 고기를 잡으면 쉽게 잡는 날이 있듯이
 매일 전도하러 다니면 쉽게 전도하는 때가 있다.”
 계시함이었다.

어느 때는 고기가 쫓아다녔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사람도 말씀 들으려고 쫓아다닌다.
 육과 영혼의 양식이 같하여 얻기 위함이다.

(암 8:1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 전도하려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전도할 자를 보내 주신다.

선생은 갇혀서도 전도하려고 결심하니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다.

평소에 만나기 불가능한 자를 옥에 보내 주시어 전도하기도 했다.

전도하니 평소 그렇게도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다.

◎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자.

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도하시고,

그를 수제자 삼아 그를 통해 역사를 크게 펴셨다.

(마 4:18~20)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행 2:38~41)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②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길으러 온 여인을 전도하심으로

이방인 세계의 전도 문이 열려 전도 역사를 크게 펴 가셨다.

(요 4: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5)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요 4:39)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

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 ③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바울을 전도하고,
신약역사 때 바울의 육을 통해 엄청난 복음을 전하여
소원 이루며 뜻을 펴셨다.

(행 22:5~8)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 이같이 전도하여서 신약의 하나님 뜻을 펴신 것이다.

- 예수님은 전도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전도하셨고
돌아가셨어도 영으로 계속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전도한 자들이
신약역사의 주추가 되어 역사를 잡아 놓았다.

- ④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마 4:21-22)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영계에 가서 본 것뿐 아니라 영에 대한 비밀까지 성경 요한계시록에 다 이야기하여 써 놓았다.

→ 이같이 예수님은 전도 이념을 가졌기에 계속 전도하셨다.
전도해서 신약역사를 이루셨다.

- 전도하여야 결혼할 짝도 오게 하여 결혼한다.
선생은 전도하여서 섬리사 경제를 운영하였다.
전도하니 하나님이 월명동도 개발하게 하시고,
돌 나무 경비도 모두 해 주셨다.
개인도 섬리사도 전도했을 때 경제 축복을 해 주셨다.

또, 선생은 전도하여서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해 드렸다.
만일 선생이, 또 너희 전도자가
너희를 전도 안 했으면 너희들은 사망으로 갔다.

- 하나님은
“전도 안 하면, 절대 자기 소원 이루어지게 축복 안 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선생은 육으로는 세상 사람에게 가서 전도 못 하니
사람을 보내서 계속 전도한다.
고래, 호랑이, 상어들 전도한다.

예수님은 당세에도 수많은 자를 전도하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희생하며 전도하셨다.
지구 세상 2000년 동안 전도하셨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으면서까지 전도했다.

원불교 불교 증산교 대순진리교 등

하나님이 볼 때 우상 종교인 그들도 그렇게나 열심히 전도한다.
 신흥종교들도 그렇게도 전도했다.

너희도

‘정말 전도하겠다.

이 시대 하나님 행하신 일, 새 시대 말씀을 전하여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시키겠다.’ 결심하고 하면,
 성령도 계속 너희에게 생명을 보내 주신다.

그 어떤 자라도 전도하려고 기도하면
 그 생명이 “정말 새로운 말씀을 찾았다.” 하며
 너를 반기며 온다.

- ◎ 환난 때 선생 불신한다고 그것 이해시키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과 그동안 행한 것만 전해라.
 말씀 배우면 말씀 따라온다.
 선생에 대해 말하려면, 지금껏 행한 것만 모두 말해 주어라.
 하나님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니 성령이 감동시켜 주신다.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전도된다.

- 할 일만 하여라. 각자 전도하여라.
 전도하여 올바른 인식관이 들어갔을 때 선생에 대해 말하면
 다 깨닫고 충격받아 기뻐 따른다.
 고로 방법을 달리하여라. 합당한 말을 잘 하여라.
 전도는 성령과 하여라. 연결해 주신다.

- 선생도 소문 듣고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전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너무 잘 가르친다고 하며 믿고 따랐다.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하여
선생에 대해 깨우쳐 주며 감동시키니, 충격받고 회개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전도 못한 자는 방법을 잘못 하여서 못한 것이다.
- 1년에 10명씩은 전도해야 섭리 교인이다.
섭리 온 지 10년 20년 되어
신급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못한다.
섭리 온 지 10년 20년 30년씩 되는데도
전도 공적자라는 자들의 전도 수가 겨우 3명, 7명, 10명이었다.
장로 임명해 달라고 하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전도 수가 2명 5명 7명씩이었다.

신약역사에서도 섭리사에서도
전도한 자가 경제도 명예도 휘날렸다.
자기가 직접 전도 못 하면
선교비 주는 것으로 전도하면 된다. 전문가는 잘한다.

때와 같이 행하여라. 지금같이 행해서 되겠냐.
선생은 전도하는 자에게 꼭 경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
- 목사는 그 어떤 자라도 최소 10명은 개인 전도 했어야 되고,

강도사는 7명 이상,
전도사는 3명 이상 기본으로 개인 전도 해야 한다.
그래야 기본은 한 것으로 취급해 준다.
전도 공적자는 20명 이상 전도해야 공적자다.
최소 30명 70명 100명씩 전도해야 한다.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님 만나고 3,000명 전도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전도했다.
그때는 핍박이 지금보다 더 했다.
전도하면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

선생은 섭리사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전도하며
수많은 자들, 신앙하게 해 주었다.

- 성경에 보면 사도도 선지자도 중심자도 메시아도
전도한 것이 업적이었다.
황금천국에 가 보면 전도자는 빛이 나고,
그 사는 환경, 집들도 어마어마하였다.

월명동도 전도해서
하나님이 그같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

- 지금 새벽에 글을 쓰는데 하나님도 성령님도
“전도하여라. 생명을 구해야 그 대가가 크니라.” 하셨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해와 달과 별같이 빛나게 축복한다.” 하셨다.

(단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 한 목사가 어떤 재벌가를 데려왔기에

선생이 그를 전도하였다.

그는 암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자였다.

선생이 기도해 주고 오랫동안 약수도 먹어 병 고치고

하나님도 바로 알게 해 주니 전도되었다.

전도되기 이전에 자신이 병으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아

이미 재산을 다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고

이제는 몸만 남았다고 하며,

조금만 더 일찍 자기를 전도했으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석을 선물로 주었다.

→ 그 후로 그 목사는 더 빨리 전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계속 전도하고 있다.

너희도 더 빨리 전도하여라.

요셉도 옥에 갇혔을 때도 전도하여서

운명이 바뀌는 길이 열렸다.

◎ 어떤 자는 엘리트나 세상 스타들, 큰 자들은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거리려 전도 못한다고 한다.

또 멋있는 자, 지위 높은 자, 예술가 등은

의식되어 전도 못한다고 한다.

선생도 의식 없이 편히 대하면서

이리 말하는 자는 생각이 잘못된 자다.

그런 자들이 더 잘 닦아져서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찾으신다.

위축감은 하나의 마음 병이다.

고로 전도해도 송사리 붕어 같은 작은 고기들만 잡아 온다.

- 큰 자를 전도해야 크게 되고,
큰 자를 전도해야 그로 더 연결되어 더 많이 전도하게 된다.
하나님도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사사들, 왕들과 같은
큰 자를 전도하여 세우셨다.

자기 마음을 담대히 만들고

똑똑한 자, 좋은 자, 뜻 있는 자를 전도하라.

그래야 섭리사가 예전같이 강하게 된다.

육적인 자들을 전도하면

전도해 놓고 기대했는데 정신이 정상이 아니니

전도자 속만 썩는다.

- 월명동 나무도 큰 것을 캐다 심으니 그리 웅장하다.
보는 자들도 즉시 좋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작은 나무를 심었으면 언제 다 클 때까지 기다리느냐.
100년 200년 걸릴 것이다.
아예 300년 500년 된 큰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당세부터 웅장하다.

→ 이같이 큰 자를 전도하여라.

○ 지금 섭리사는 엘리트일수록 전도를 안 한다.

엘리트들이 오히려 전도가 쉽다.

섭리 초창기 때는 젊은 대학생들만 주로 전도했다.

선생은 바다의 고래, 상어,

땅의 호랑이, 사자, 코끼리, 곰, 킹콩 같은 자들을 전도한다.

혼자 전도 못 하겠으면 전문가에게 연결하여 전도해라.

조개 잡는 자들은 평생 조개나 잡는다.

꿀뚜기 잡는 자는 잡기 쉬우니 그것만 좋아 잡는다.

전도도 자기 생긴 대로 한다.

중고등부 중에도 앞날 보면 큰 자 많다. 그들이 해야 한다.

○ 하나님과 성령과 같이 전도하여라.

꿈에 보니 산에 큰 짐승이 있는데

선생이 못 잡으니 천사가 잡아 주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전도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성령 주가 해 주시고, 천사도 해 준다.

○ 인터넷에 그물치고,

섭리역사 새 말씀의 그물을 쳐라.

성령이 임하여 담대해야 큰 자들 전도한다.

섭리사 말씀은 바다 그물인데,

겨우 도랑에 가서 그물 쳐서 가재만 잡고 있다.

그러니 가재가 자꾸 물어 버린다.

작은 고기가 잡혔다 빠져나간다.

문제자들은 결국 이같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님 성령이 너희를 그물로 쓰고 행하시니
누구나 의식 말고 하라.

세계 최고 돌 조정 보이고, 약수도 준다고 하며 전도해라.
말한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 장로들도 목사들도 직장부들도 캠퍼스도 지도자들도
뭉쳐 전도하라.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
모두 증산교 대순진리교 등 우상 종교가 인도하는 대로 갔다.
하나님 성령 한탄하신다.

- 도시에 사는 자들이 보짱, 마음이 작다.
선생, 산골짜 살았어도 마음의 스케일이 큰 것 보아라.
마음과 정신이 크니, 크게 한다.
선생같이 젊은 자와 큰 자 전도하라.

전도 안 하면 더 큰 환난 당한다.
자기가 전도할 자인데 전도를 안 하면
가정에서도 자기 주관권에서도
그로 인해 환난 당하여 고통받게 된다.
전도하면 내 편 되니 안 당하고, 그도 하늘 군사 된다.

보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크게 쓰신다.

◎ 선생이 전도하여 교회 다니게 해 줘도

교역자들이 그들을 크게 관리를 못한다.

나이 먹은 큰 자들이 짝지어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선생이 전도하여 이미 섭리역사를 아는 자인데도

지도자들이 관리를 못한다.

그들은 너희들이 평생 전도해도 못 할 자들이다.

고로 섭리 엘리트들이 가서 관리하여라.

다시 그런 자들 전도하기 힘들다.

군함을 나룻배가 끌지 못한다.

선생이 큰 자들을 1년 10년, 어떤 자는 16년 동안 전도했다.

또 어떤 자는 큰 자인데도 21일 만에 전도했다.

그때마다 다르다.

○ 전도하고, 관리다.

관리는 선생이 유능자와 같이 해 주니

큰 자도 잘 관리되었다.

○ 선생 50대 때 한국의 대기업 그룹 회장을 1년 동안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없다. 나를 믿고 산다.” 라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는 전도는 안 되었어도 선생과 잘 지내면서

월명동 개발을 그 회사에서 그냥 해 준다고도 했다.

그런데 선생이 싫다고 하고

오직 하나님 구상대로만 월명동을 개발했다.

만일 그때 개발 다 해 준다고 그냥 그대로 했으면
산도 월명동도 다 버릴 뻔했다.

→ 고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다.

○ 전도할 때, 그때마다 각종 방법이다.

인생이 힘들고 심령이 힘든 자들은
오히려 의지할 자를 찾는다.

권위 있는 전도 방법을 잘 짜서 하면 금방 되고,
잘 못하면 100배는 더 힘들다.

고기 잡는 것, 사냥하는 것 배우고,
기도하면서 잘 구상하고 하면 한 번에 된다.

○ 전도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였으니

하나님께 깨끗이 드러라.

전도하다 연애하고 사탄과 하나 되면
오히려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런 자들이 많았다.

고기 잡다 고기가 잡아먹은 격이다.

◎ 전도 잘하는 교회의 교역자는 연속 목회하게 한다.

못하면 다른 것 해야 한다.

전도하려 목회하는 것이다.

교회가 일개 개인이 1년 전도하는 만큼밖에 전도 못하면 되겠냐.

그러한 교회와 교역자는 프로 선수가 아니다.

그냥 동네 불 차는 자다.

- “환난 때문에, 악평 때문에 전도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선생은 누구보다도 환난과 악평 받는 핵인데도
환난 때 더 크게 한다.

전도하려고 맘먹고 결심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에 맞춰
합당한 자 골라 보내어 만나게 하신다.

선생은 하나님 성령 예수님 말씀만 잘 전해 주면서
오직 성삼위만 믿으라고 하였다.

결국은 선생까지 좋아 믿으면서 따랐다.

- ◎ 성경에 보면 의인은 악인들로 쫓기다가

최고 원하던 곳에 가서 최고 더 이상 없는
하나님 뜻도, 자기 뜻도 이뤘다.

그냥은 그곳에 못 가는데 환난 때문에 가서 얻기도 했다.

야곱, 요셉, 엘리야, 에스더, 모르드개,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사야, 다윗왕, 솔로몬왕, 기타 왕들,
예수님까지, 성경을 모두 읽어 보아라.

악인과 원수들로 환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지옥 고통 당하여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 뜻을 쫓고 가면서 최고 이상세계를 이루었다.

- 지금도 그러하다.

쫓긴다고, 핍박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하여라.

그 환난의 지옥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생각지 못한 때
 최고 소원을 성취하게 해 주신다.
 그때까지 충성으로 할 일 하기다.

- 선생도 중국에서 악인들로 쫓길 때
 평소 찾던 하나님 의자 작품을 샀다. 지금은 못 산다.
 쫓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작품도 얻어
 천 년 동안 후손까지 보게 했다.
 또 환난 중에 전도도 하여서
 천 년 동안 그 나라 뜻을 펴게도 하였다.

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오니
 낙심 말고 기도하고 담대히 희망으로 하여라.

- 미래를 위해 전도해야 한다.
 안 하면 정말 후회한다.
 선생이 전도하라는 말의 근본은 이야기 안 한다.
 해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전도한 자만이 소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고 이 말의 뜻을 안다.

모두에게 전도의 축복을 빈다.

(말씀 마쳤습니다.)